

영국 경제사절단 및 UAE 순방 후속조치를 위한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 결과 보고

2023. 11.

1

출장 개요

□ 기본 개요

○ 추진목적

- 한-영국 양국 경제인 간 소통 및 경험 확대 논의
- 영국 정부 및 기업과 상호 협력과제 발굴
- 두바이 개최 백두포럼 사전 점검(UAE 경제사절단('23.1) 후속조치)

○ 출장기간 : 2023. 11. 20.(월) ~ 2023. 11. 25.(토)

○ 출 장 지 : 영국 런던 / UAE 두바이

○ 출 장 자 : 중앙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 실무자(3)

* (실무) 김철우 실장, 강지철 부부장, 임경민 과장(24(금) 프랑스 파리 경유 후 귀국)

□ 일 정

날 짜	세부 내용
11.20(월)	[출국] 인천 - 런던 (11:05~16:30, 14h 25m, KE907)
11.21(화)	(12:00) 국민 환영 행사
	(17:15) 영국 총리 리셉션
	(20:20) 국왕 만찬
11.22(수)	(09:15) 비즈니스 포럼
	[이동] 런던 - 두바이 (22:00~08:45 ⁺¹ , 6h 45m, EK006)
11.23(목)	(11:00) 두바이 상의 미팅
11.24(금)	(17:00)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간담
11.25(토)	[귀국] 두바이 - 인천 (03:30~16:50, 8h20m, EK322)

2

주요 내용

□ 영국 런던

(1) 국민 환영 행사

- 일 시 : 2023. 11. 21(화) 12:00 ~ 12:30
- 장 소 : 호스 가즈 광장(Horse Guards Parade) ※ 중앙회장 참석

(참고) 호스 가즈

- 버킹엄 궁전의 공식 입구이자 근위 기병대 연병장
- 총리관저(다우닝가 10번지)가 있는 다우닝가에 위치
- 영국 왕실 초청 국민은 환영식에 참석 후 버킹엄궁에 들어가는 철차를 거침



(2) 리시 수낙 영국 총리 리셉션

- 일 시 : 2023. 11. 21(화) 17:15~18:30
- 장 소 : 총리 관저(다우닝가 10번지) ※ 사절단 전체 참석
- 주요내용 : 한-영 기업인 및 정부 네트워크 등

<총리프로필>

성 명	리시 수낙(Rishi Sunak)	
생년월일	1980. 5. 12	
출 생 지	잉글랜드 햄프셔주 사우샘프턴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옥스퍼드대학교 링컨칼리지 문학사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0 : 제79대 영국 총리 ○ `20.2~`22.7 : 영국 재무장관 ○ `19.7~`20.2 : 수석부장관 	
특이사항	○ 영국 역사상 최초의 인도계이자 유색인 총리, 최연소 총리	

(3) 찰스3세 국왕 주최 국민 만찬

- 일 시 : 2023. 11. 21(화) 20:20~23:20
- 장 소 : 버킹엄궁 ※ 중앙회장 참석
- 복 장 : 화이트타이(연미복)



(4) 한-영 비즈니스 포럼

- 일 시 : 2023. 11. 22(수) 09:15~15:00
- 장 소 : 맨션하우스 런던
- 참 석 자
 - (한국) 정부인사 및 한국 경제사절단
 - (영국) 한국과의 협력 사업 있거나 관심 있는 영국 기업인
- 주요내용 : 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 분과세션 진행 등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 두바이 상공회의소 미팅

- 일 시 : 2023. 11. 23(목) 11:00 ~ 12:40
- 장 소 : Dubai Chamber 컨벤션 홀
- 주요내용 : 백두포럼 관련 주요 내용 확인(이동 동선, 발표 내용, 순서 등)
* aT센터, 두바이상공회의소 담당자 등 참석



(2) 문병준 두바이총영사 간담

- 일 시 : 2023. 11. 24(금) 17:00 ~ 20:00
- 장 소 : 소반(UAE)
- 주요내용
 - UAE 현지기업의 백두포럼 참석 지원
 - UAE 대사관의 백두포럼 축사 등 협력 요청

사진	성명/직위	이력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두바이 총영사('21.6~) · 前 주이집트한국대사관 총영사 · 前 외교부 중동 2과장

문화일보

2023-11-29 (수) 017면

한·영 경제협력 계기로 중소기업도 새로운 미래 기대

기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필자는 지난 20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한국에 영국은 세계 5위의 온라인 분야 수출 시장이다. 이번 순방은 140년 전인 1883년 조영 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의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국방과 경제, 미래 협력 등을 총망라한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협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행원을 줄이고 스타트업과 기업인 동행을 늘리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지난 5월 영국 국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의 첫 번째 국빈 초청 대상이 한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외교무대에서 언제나 '을'의 위치였다. 주요국에 차관과 공적 개발원조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된 외교 과제였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진행된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 국가 중 하나였다. 국가 브랜드보다는 자동차, 휴대폰 등 주요수출 품목을 잘 만드는 국가 정도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고, K-팝과 K-드라마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도 올라갔다.

영국 국왕 환영 만찬에서 찰스 3세는 "예술적인 창조성이 영국 문화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가장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30년 전만 해도 영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언어 중 가장 빠르게 인기가 늘어나는 언어가 한국어가 될지 상상하기 힘들었다"고 인정했다. 찰스 3세가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한류 스타들의 이름을 줄줄이 꿰는 것을 보며 양국의 주요 참석자 모두 활짝 웃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된 데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K-팝과 함께 K-뷰티, K-푸드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중소기업

의 인기 상품이 세계적 한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영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국가다.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가장 먼저 공업국가로 발전했지만, 오늘날 영국의 가장 큰 자력은 소프트파워에 있다.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속해서 국가 브랜드를 각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과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환경은 글로벌 수요둔화와 함께 강대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월간 수출액이 10월에 이어 지난 11월에도 2개월 연속 증가해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해법은 영국과 같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 강국에 K-컬처를 결합한다면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은 전 세계가 향유하는 문화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한영 간의 경제협력 약속을 바탕으로 경제적·문화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場)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한·영 경제계 ‘업그레이드 FTA’ 모델 만든다

비즈니스 포럼서 MOU 31건 체결 소재·부품 통관 절차 간소화 기대

한국과 영국 경제계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협상에 발맞춰 핵심 경제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양국 기업 간 2700억원 규모의 계약과 3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경제인과 정부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류진 한경협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

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와 은행·증권·중소기업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영국 측에서도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르네 하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스탠다드차타드그룹(금융)·리오네토(광산·금속)·코리오(해상풍력) CEO 등 영국의 대표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케미 베이드록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영국의 주요한 파트너이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한국과 FTA(2021년 발효)를 맺었다. 하지만 상품·서비스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최신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

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국은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업그레이드 FTA’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재계는 FTA 개선 협상이 핵심 소재·부품의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에 앞서 한국 기업 25곳과 영국 기업 33곳은 총 31건의 업무협약과 계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무라테크놀로지·KBR과 함께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설계·운영 MOU를, 효성중공업은 베르드트 비드코와 배터리 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 밖에 한국전력 등이 영국 기업들과 신규 대형 원전 설계 등 8건의 MOU를 체결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방산 분야에서 5건의 협약을 맺었다. 이소아 기자 isa@joongang.co.kr

한·영, 외교·국방 ‘2+2회담’ 신설 ... 우주협력 MOU도 체결

윤 대통령·수석 ‘다우닝가 합동’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규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양국 ‘워킹 홀리데이’ 5000명으로
영국 에너지기업, 한국에 1.5조 투자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 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 재안에 따라 회담 장소인 총리 관저 별칭(30 Downing Street)에서 이름을 딴 이번 합의는 ▶국방·안보 ▶과학기술·무역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등 3대 협력 분야에 걸쳐 45개의 과제를 적시했다.

양국 정상은 먼저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에도 반대 입장을 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 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구광모 LG 회장, 한 자리 건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 마이클 마이클린 런던 금융특구 시장, 윤 대통령,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뉴스1]

명히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하마스 테러 공격 규탄에도 한국 소리를 냈다. 양국은 또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이 2+2 장관급 회의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양국은 특히,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에 이어 파이프라인(Five

Eyes)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프라인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에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다. 양국은 합동군사훈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고, 북한 자금줄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가 초점을 둔 또 다른 분야는 과학기술이다. 영국은 138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과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양자(quantum)·인공지능(AI)·합성생물학과 뇌과학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자와 AI 기술 협력 이면에는 군사 전략적 측면도 담겨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들 군사 기술로 병용하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양국은 내년부터 한·영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올리고, 인원도 기존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기로 하는 등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최고과학자 미래 포럼, 문화 예술인 격려행사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아스트라제네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블스모이스, 삼성전자·보타폰 등 한·영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열거하며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협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코리오(Corio)와 BP가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우리 정부에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 등지에 2.9기가와트(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코리오는 이번 투자로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할 예정이다. BP는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투자를 신고했다.

런던=권호지 kwhn.ho@joongang.co.kr

“韓·英 수교140주년… 자유·번영·미래 굳건히 협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만찬에서 만난 영국 찰스 3세 국왕. 왼쪽이 찰스 3세 국왕,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진제공=국방부·Y-News)

버킹엄궁서 국빈만찬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에 준배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영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나눈 협력의 동지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하지 못할 길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이 한국전쟁에서 큰 도움을 준 데 대해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실 등 영국과 함께 도전해온 사려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김관용 여사는 21일 저녁(현지시간) 버킹엄궁 별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에서 나는 ‘영

까지 진무에 참여했다”며 “벨라미 스타크의 별장은 살전에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겼고 죽으면 꼭 한국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오고해치고 유언대로 부인 유영기남 공원에 안장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 임정공부에서 18세 나이로 전사한 제임스 본드 일병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경제의 고국-보완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공화국으로 변형하며 경제적 융성 및 국가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영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고 선도해왔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함께 구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 여사는 영국 대관후 세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 104편의 완구품을 선물로,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라는 뜻을 가진 영국어는 ‘영국이 늙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빈만찬엔 117명여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 주관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식수용료들과 이들을 상징하는 화환, 구경모 LG그룹

회관,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로얄그룹 회장, 김동진 한화그룹 부회장, 손성식 한국관광진흥회 회장, 유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에선 리시 수석 총리, 윌리엄 왕세자, 케서린 대공비 왕세자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등도 초청받아 140명여가 참석했다.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블랙핑크는 우리 정부가 여신 영국 정부가 작곡 나서서 초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 초빙된(도트)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블랙핑크는 우리 정부가 여신 영국 정부가 작곡 나서서 초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 초빙된(도트)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블랙핑크는 우리 정부가 여신 영국 정부가 작곡 나서서 초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 초빙된(도트)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블랙핑크는 우리 정부가 여신 영국 정부가 작곡 나서서 초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 초빙된(도트) 블랙핑크(오자, 제니, 지수, 리사) 멤버 전원도 초대됐다.

본인제공/국방부·Y-News

아시아투데이

尹 “英, 나의 벗…” 영어 건배사 찰스 3세 “환영” 한국어 만찬사

영국 국왕 주최 국빈 만찬 찰스 “韓, 전쟁 때와 달고 기적”尹 “韓·영 피를 나눈 열명 동지”이재음·구광모·블랙핑크 참석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21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한 건배사를 하며 양국의 두터운 우정을 강조했다. (AFP 연합뉴스)

“영국 나의 벗이여 영영이 늙지 않으리라.”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한 건배사를 하며 양국의 두터운 우정을 강조했다.

찰스 3세 국왕이 먼저 “바람이 자주 부는데 내 밭이 번식 위에 섰다. 강물이 자주 흐르는데 내 밭이 언덕 위에 섰다”는 운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시구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한 것이다.

한국말로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며 만찬사를 시작한 찰스 3세는 “한국이 아리둥실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역량 직전에 불행해도 작고하신 시인 운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며 운동주의 시를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찰스 3세는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력을 이뤘다”며 “영국에 다시 보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와 셉티비에는 BTS의 다이나미이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열명의 동지”라며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아 국군이 백희간두에 있을 때 8만 1000여 명의 영국 병사들이 한국의 자

유를 지키기 위해 때려낸 길을 달려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학생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쿨,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의 BTS와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은석 연미복에 흰색 나루트타이를 착용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만찬에는 영국 국빈 1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제니, 로제, 지수, 리사 등 블랙핑크 멤버 4명이 모두 참석했고, 이재음 삼성전지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성식 한국경제인협회장, 유진 한국경제인협회장(풍산 회장), 김동진 한화그룹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자리했다. 영국에서는 리시 수석 총리,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선미 기자

경제계 원팀코리아, 英서 원전·방산 '전방위 세일즈' 성과

한영 비즈니스 포럼,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기업인 총출동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영국 경제계가 한영 FTA 개선 협상, 인프라 제1차 협력, 양국에너지 등 녹색부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 통상부와 공동으로 런던에서 '한영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영국 경제인, 정부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뒀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제기자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을 상징장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민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와 은행 및 증권-중소기업 대표 등 기업인도 자리했다.

영국은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더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슬러 리오 틴도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 한-영 공동-방산-청정에너지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캐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은 "영국은 영국의 주요한 파트너이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으며, 마이클 마이클의 런던금융특구 시장은 양국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21년 발효된 한영 FTA가 양국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통상 관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탈(BREXIT)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개선 협상은 공급망 협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맞닿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교통부장관 "韓은 주요 파트너" FTA 개선협상·녹색투자 논의**

플라스틱서 가품 알고 원천 짓고 양국 31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이재용(왼쪽) 오승환(가운데) 최정호(오른쪽)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국의 미래를 위해 스텝단 기술산업 협력 △녹색산업 파트너십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등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포럼에 앞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는 총 31건의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협력 유망 분야로 꼽히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5건의 MOU를 체결했다. GS칼텍스는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 미국의 KBR과 함께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설계와 운영 최적화 협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은 영국의 베르단트 비드코와 ESS의 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력과 사회사는 원전 분야 8건, 한화에너지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모두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기업 140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에너지-원전-신산업-건설-플랜트-방산-금융-바이오-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동욱 기자 kato@



양국 경제인 협회인 한국경제인협회와 21일 런던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에너지경제

韓-英 비즈니스 포럼 개최...이재용·정의선 등 재계 총수 집결

한국과 영국 경제계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인프라 제3국 협력 △청정에너지 등 녹색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22일 오전(현지시간) 런던에서 '한-영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년만에 성사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이 계기가 됐다.

이날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리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제기자협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가 함께했다.

무역·투자 등 FTA 개선 협상 논의 MOU 체결식서 원전 등 31건 협력 "양국 무역·투자 관계 발전 계기"

영국측에서도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더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슬러 Rio Tinto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마이클 마이클리 런던금융특구 시장은 양국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영국의 주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21년 발효된 한-영 FTA가 양국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통상관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탈 유럽연합(EU)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한-영 FTA 개선 협상은 공급망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빛나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국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포럼에 앞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는 총 31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방산·신산업·건설·플랜트·방산·금융·바이오·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양국 협력 유망 분야로 꼽히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5건의 MOU가 체결됐다. GS칼텍스는 Mura Technology, KBR과 함께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설계와 운영 최적화 협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은 영국의 베르단트 비드코와 ESS의 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원전 분야에서도 8건의 협약이 체결되는 등 성과가 두드러졌다. 한국전력이 영국 에너지 기업들과 신규 대형원전 설계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사 한전원자력원료·한국전력기술 등도 영국 신규원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에너지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산분야에서도 양국의 향후 사업 협력이 기대된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인 웨스트민스터궁 로열 갤러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교 140주년... '글로벌 전략 동반자 관계'로

'다우닝가 합의' 채택

尹대통령, 수석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포럼 참석해 연대 방안 협의 찰스 3세, '윤동주' 시 암송하며 환영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석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안보·국방은 물론 과학기술·공급망 등 경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양국 관계는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한·영 정상회담이 열린 다우닝가(街)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이 합의 명칭을 이같이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했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선언 등 문서를 채택하면서 '다우닝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시아 국가와는 이번이 최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1993년 정치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다

우닝가 선언'을 발표한 정도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의회 연설에서 "이제 한·영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태어난다"며 "양국 간 협력 지평은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국은 2021년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과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유럽 내 6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디지털 통상 활성화 등 보다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수석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영국 기업총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찾아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영국 총리실은 "한국 기업들이 210억 파운드(약 33조80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와 추가 30억 파운드(약 4조8000억원) 규모 무역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 연대 방안을 협의했다. 오후에는 런던

단금융특구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두 차례 국빈 만찬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 영국 국빈 순방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후 초형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와 공식 환영식, 환영 오찬, 국빈 만찬 등을 함께했고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용사 묘에 헌화했다.

찰스 3세는 국빈 만찬에서 한국어로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임부를 영어로 암송하며 친구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도 영어로 "뱃아여, 영국아여, 그대는 내게 결코 놓지 않으리라"는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는 영국이 자랑하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04번' 시구를 인용한 것이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C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종산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과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전원, 영국 측에서 수석 총리,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장관 등 양국에서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희 기자 noice1@

한·영 기업들, 첨단기술부터 문화·콘텐츠까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경제계가 첨단 기술산업, 녹색산업,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영국 기업동상부와 공동으로 22일(현지시간) ‘한·영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양국 경제인과 정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

200여명 정재계 인사 참석
양국 ‘비즈니스 포럼’ 열어
앞서 31건 업무협약 체결도

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영국 측에서는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르네 하스 최고경영자(CEO),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의 빌 윈터스 CEO, 철광석 생산업체

리오 틴토의 제이콥 스타우솔름 CEO 등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21년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탈EU 현상 심화에 양국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FTA 개선 협상도 진행하면서 향후 공급망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 회장은 포럼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 글로벌 기후변화 어젠다 선도, 원전·수소·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언했다. 그

는 또 문화·콘텐츠 강국인 한국과 영국이 협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는 총 31건의 협약 및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에너지·원전·신산업·건설·플랜트·방산·금융·바이오·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경제사절단은 21일 리시 수내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주최한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